

■ 한국의 지역연구 조직화 및 후진양성 모델

- 동남아연구의 사례

전 제 성⁴⁾

한국의 지역연구는 1990년대 이후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지만 ‘제3세계’나 ‘특수지역’이라고 불리는 지역의 연구는 조직화, 연구 축적, 연구자육성의 측면에서 여전히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제3세계 지역연구자들은 국가적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한 목소리로 촉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달라진 바는 없다. 따라서 주어진 상황에서 지역연구자들 스스로 자구적 전략을 고안하고 집단적으로 실천할 필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필자는 한국의 동남아 연구를 사례로 지역연구자들의 집단적 노력을 연구자 조직화, 연구 성과, 후진양성전략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소개, 검토하고자 한다.⁵⁾

4) 이 글은 학술대회 〈2009 인문한국(HK) 해외지역연구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소 공동학술대회: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2009년 3월 27일 서울 대학교 인문대학 신양인문학술정보관(4동) 국제회의실)에서 발표한 것이다.

5) 이 발표문은 다음에 열거한 필자들의 연구에 기초한 것이다. 전제성, 「한국의 동남아 연구 동향과 과제: ‘제3세대’ 연구자 선언을 기대하며」, 《동아연구》 50, 2006; 전제성·이재현, 「한국의 동남아학 교육과정과 지역연구자 육성모델 연구」, 《동남아시아연구》 18(2), 2008; 이성형·전제성, 「한국정치학계의 제3세계 지역연구: 동남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한국의 학술연구: 정치학·사회학』, 대한민국학술원, 2008.

한국에서 동남아 지역연구의 조직화

한국에서 동남아연구가 본격적으로 출현한 시기는 1980년대였다. 이후 3단계 혹은 3세대에 걸치는 발전과정을 보여주었다. 이를 도식하면 다음 페이지의 [표 1]과 같다.

지역연구자라면 이 표를 보고 전반적인 경향의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한국에서 동남아연구는 동남아전공자들에 의한 연구와 장기 현지조사를 필수요건으로 삼는 지역연구 방식이 주류를 형성하는 발전과정을 걸어왔다. 미국에서는 정치학계에서 지역연구방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심각한 논쟁이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그러한 논쟁 없이 기존 세대가 새로운 세대를 지지 후원하는 순조로운 발전과정을 거쳤다.

[표 1] 한국의 동남아연구 ‘세대 삼분 구도’

세대 구분	1세대	2세대	3세대
주도 시기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연구자	비전공자	동남아전공자	
연구 방법	개관 연구	비교연구 및 사례연구	지역연구(장기현지조사)
연구 분야	경제 및 국제관계	국내 정치, 사회, 문화, 역사 분야 추가	
연구 기관	부재	연성 조직 (한국동남아학회/ 동남아지역연구회)	경성 조직 (사단법인 한국동남아연구소)

또한 한국의 동남아연구는 연구자 집단의 초대학적 조직화에 심혈을 기울이는 발전특성을 보여주었다. 동남아연구의 제2세대들은 1991년에 제1세대와 연대하여 <한국동남아학회>를 설립하였고, 1992년에 독자적으로 코커스형 연구조직 <동남아지역연구회>를 창설하였다. 두 조직은 초대학적인 연구조직으로서 1990년대 한국동남아연구의 ‘허브’ 역할을 하였지만 네트워크형 ‘연성연

대'(soft solidarity) 조직이었다. 2004년에는 제3세대가 제2세대와 연대하여 기존의 〈동남아지역연구회〉를 '경성연대'(hard solidarity) 조직인 〈사단법인 한국동남아연구소〉로 재편하기에 이른다. 이 조직이 경성인 이유는 독립적인 연구실과 체계적인 재정관리 시스템을 갖춘 공익법인조직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한국 동남아연구의 조직화는 연성조직인 한국동남아학회와 경성조직인 한국동남아연구소라는 상보적인 '양 날개' 구조로 발전하였다.

이렇게 한국 동남아연구자들이 연구자 조직화에 노력을 투여한 이유는 연구자가 소수였고, 극소수의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에서 동남아 관련 학과가 부재하고 따라서 초대학적 협력만이 교육과 연구의 합리적인 방안으로 간주되었으며, 학제적인 연구와 역내국가간 비교연구를 수행할 필요를 강하게 느꼈기 때문이었다. 소수라는 단점 때문에 전국적 연대가 가능하였으며, 동남아의 내적 복잡성 -사소하지 않은 국가별 차이- 때문에 연구자들 사이에 서로 배우려는 기풍이 자연스럽게 조성될 수 있었다.

동남아 연구의 축적과 확장

한국에서 동남아연구의 축적은 전반적 향상 가도에 있다. 단행본의 수가 1980년대 2권에 불과했지만, 1990년대에 최소한 7권, 2000년대에는 21권이나 출판되었다. [표 2]에서 보듯이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수도 증대일로에 있으며,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5대국가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산출되고 있다. 2000년대에는 한국 동남아연구자들의 연구결과가 외국의 출판사나 학술지를 통하여 출판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성과로 언급할 만하다.

[표 2] 학회지 게재논문의 연구대상국가

	1992~1995	1996~2000	2001~2005	2006~2007	계
베트남	8(30%)	11(22%)	16(20%)	5(21%)	40(22%)
태국	3(11%)	10(20%)	18(22%)	3(13%)	34(19%)
인도네시아	5(19%)	10(20%)	12(15%)	5(21%)	32(18%)
필리핀	7(26%)	8(16%)	10(13%)	3(13%)	28(16%)
말레이시아	1(4%)	4(8%)	14(18%)	4(17%)	23(13%)
싱가포르	2(7%)	2(4%)	5(10%)	1(4%)	10(5%)
미얀마	0(0%)	2(4%)	3(4%)	1(4%)	6(3%)
캄보디아	1(4%)	1(2%)	1(1%)	2(4%)	5(3%)
라오스	0	1(2%)	0	0	1(.5%)
브루나이	0	0	0	0	0
동티모르	0	0	0	0	0
계	27(100%)	49(100%)	79(100%)	24(100%)	179(100%)

출처: 《동남아시아연구》 1권~17권 2호.

* 비교연구는 사례 국가에 각 1건씩 기록하고 일반연구는 배제.

연구자의 구성도 다양해져서 동남아연구와 조직화를 선도했던 정치학자들뿐만 아니라 인류학, 역사학, 경제학, 사회학, 어문학 전공 학자들이 함께 공동연구를 진행하게 되었고, 특히 인류학자들의 경우 2000년대 동남아 연구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연구의 주제도 연구 참여 학문분과의 확장과 새로운 상황의 전개로 인해 다양해져서 민주화와 정치리더십, 선거와 정당, 경제 성장과 위기, 아세안(ASEAN)과 동아시아지역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수행되고 결과물이 출판되었으며 현재 서강대 동아연구소가 인문한국(HK)의 지원을 받아 동남아 지역의 형성에 관한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발전은 동남아 연구자들이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연구의 조직화에 집단적으로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다.

동남아학계의 후속세대 육성모델

한국의 동남아학계는 후속세대의 육성을 위해 지난 10여년간 각별히 노력하였고 그 전략 모형은 [표 3]으로 도식할 수 있다. 지역전문가의 형성을 관심촉발, 심화학습, 현지조사 단계로 나뉘 보았을 때, 동남아학계의 육성모델은 심화학습과 현지조사 단계의 대학원생들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었으며, 심화학습 단계의 지원은 한국동남아연구소의 프로그램으로, 현지조사 단계의 지원은 한국동남아학회의 프로그램으로 실현되었다.

[표 3] 지역전문가 육성단계와 동남아학계의 지원 프로그램

형성단계	‘동남아학계의 육성모델’
관심촉발단계 (체험, 언어)	- 학부생 학습그룹 조직 및 장학금 지원(서강대 동아연구소) - 교양강좌 개설(서강대 동아연구소) 및 전공강좌 개설 운동 - 현지어 학습 운동(서강대, 전북대, 인하대)
심화학습단계 (독회, 연수)	- 초대학적 대학원생 독회 조직 후원(한국동남아연구소, 지난 15년간) - 대학원생 현지단기연수 지원프로그램(한국동남아연구소, 지난 3년간)
현지조사단계 (조사, 발표)	- 석박사과정생 논문작성 현지조사 지원(한국동남아학회, 지난 11년간) - 학술대회와 학회지 개방(한국동남아학회, 지난 4년간)

한국동남아연구소는 1994년부터 초대학적으로 대학원생들을 준회원(이전 명칭은 연구회원)으로 모집하고 대학원생들의 자율적 독회를 지속적으로 후원해왔다. 준회원 제도와 대학원생 독회 프로그램은 적지 않은 수의 대학원생들을 동남아연구자의 길로 유도한 성공적인 프로그램이다. 지난 14년간 이 프로그램은 8명의 동남아연구 박사를 배출하였으며, 현재 31명의 국내외 대학원생

이 준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우선 대학별로 각기 산개된 대학원생들이 한데 모인다는 데서 연유한다. 대학원생들은 대학과 학문분과를 초월하여 만나고 정보를 교환하고 책을 함께 읽으면서 다른 학문분과의 이론과 지식도 채득하고 주전공이 아닌 나라에 대한 이해도 넓히면서 동남아교육의 분절성을 극복하게 된다. 더구나 동남아강좌가 없거나 희소한 학교에 소속된 대학원생들에게 이런 모임이 아주 절실하다. 이 프로그램의 또 다른 장점은 학생과 선생의 만남이다. 준회원들은 연구소에 가입하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전공의 정회원들(현재 44명의 박사)과 접하게 되고 이러한 만남이 학업에 관하여 선배들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러한 모임은 대학원생들이 차후에 지역전문가로 성장하였을 때 공동 연구 및 활동에 필요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게 해준다. 준회원 모임은 선출된 대표가 자율적으로 운영하지만 연구소가 모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보조하고 각종 프로젝트의 연구보조원으로 준회원을 채용함으로써 후원하고 있다.

최근에 연구소는 동남아현지학자들의 교육네트워크(SEASREP: Southeast Asian Studies Exchange Program)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단기현지연수프로그램(Advanced Seminar)을 개발하여 준회원들을 지원하고 있다. 여름방학 중 일주일간 동남아의 한 나라로 가서 오전에는 저명한 현지학자들의 특강을 듣고 오후에는 명소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인데 매년 선발된 7~8명의 대학원생들에게 별도의 경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해마다 나라가 바뀌기 때문에 몇 년간 연속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은 동남아의 여러 국가에 관한 입문지식을 상당한 정도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동남아학회도 설립당시부터 후속세대를 중시하여 학

회지 게재와 학술대회 발표에 있어서 박사과정생들의 참여를 허용하였으며 최근에는 석사과정생까지 참여할 수 있게 배려하고 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한국동남아학회의 결정적인 후속세대육성 프로그램은 대학원생 현지조사지원제도이다. 학회는 석박사과정생 현지조사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마다 5~6명의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논문작성을 목적으로 하는 동남아 현지조사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학생들은 현지조사 계획을 포함한 학위논문계획서를 제출하고 학회에서 위촉한 심사위원들이 지원대상자를 선발한다. 석사과정생은 3개월 이상 현지체류를 조건으로 미화 3천불, 박사과정생은 6개월 이상 현지체류를 조건으로 6천불을 지원받고, 유일한 의무는 학위논문을 완성하여 제출하는 것뿐이다. 지역연구의 결정적 관문인 현지조사에 대한 후원사업은 한-아세안학술교류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한국외교통상부의 중개를 통하고 아세안 사무국(ASEAN Secretariat)의 심사와 승인을 거쳐 사용할 수 있는 한-아세안교류기금 덕분에 가동되고 있다. 따라서 외교부와 아세안을 넘나드는 복잡한 절차를 충족시키는 학회 관계자들의 노고와 인내 없이는 지속되기 어려운 프로그램이다.

대학원생 현지조사 지원프로그램은 김영삼 정부에 의해서도 추진되었었지만 1997년 외환위기와 정권교체로 중단되었다.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은 교육부가 서울대학교 지역종합연구소에 운영을 맡겨서 추진되었고, 해마다 2억씩 투자하여 20명 내외의 박사과정생을 세계 각지로 현지조사를 보내던 야심찬 기획이었지만, 외환보유를 중시하는 분위기로 인해 중단된 이후 지역연구 관련 학회들이 단체로 교육부에 청원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원되지 않았다. 당시 교육부는 지역연구 관련단체들의 청원에 대하여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신진연구인력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라는 답변

을 주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학생이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연구비를 1년간 지원받는 프로그램이었다. 현지조사가 의무사항은 아니었지만 지역연구를 지망하는 학생들은(필자의 경우처럼) 연구비를 현지조사비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마저도 2007년에 중단되고 말았다. 그래서 한국동남아학회 현지조사 지원 사업이 국내 유일의 프로그램으로 남게 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유일할 뿐만 아니라 두 가지 점에서 과거의 교육부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독창적인 프로그램이다. 우선 이 프로그램은 박사과정생뿐만 아니라 석사과정생도 지원하는 ‘조기교육’ 프로그램이고, 또 지원금 감소와 영주권자 우대정책으로 인해 갈수록 소외되는 한국인 유학생들까지도 지원하는 ‘국제’ 프로그램이라는 점이다.

몇 가지 과제

동남아 연구와 관련된 과제들을 모두 이야기할 수는 없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언급한 현황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문제에 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연구자 조직화와 관련된 과제이다. 한국의 동남아연구는 초대학적 조직화를 추진축으로 삼아 왔다.

그렇지만 경성 조직의 단계에 이르면서 양질의 연구 수행뿐만 아니라 조직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노동의 일상적인 투여를 요하게 되었다. 공동의 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노동의 배분은 연구자 간 갈등을 낳을 소지를 지닌 문제이고, 이런 ‘공공재의 딜레마’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것인지가 지속적인 과제로 맴돌고 있다.

연구의 축적과 확장과 관련된 문제들은 첫째, 연구 성과의 출판이 증대하였지만 대중적인 관심을 끌만한 쉬운 책들의 발간은

[표 4] 주요 대학교의 학부 및 대학원의 동남아 교과목 개설현황

구분	학교명	정치 경제		역사 문화		언어 문학		계
		학부	대학원	학부	대학원	학부	대학원	
국립대	강원대		1	1	1			3
	경북대			1				1
	경상대	1	1					2
	목포대			1				1
	부산대		1		1			2
	서울대			3	2	1		6
	창원대	1						1
	전북대	1						1
	소계	3	3	6	4	1		17
사립대	경희대	1						1
	고려대			2				2
	동국대	1						1
	대구가대	1						1
	동아대	1						1
	상명대	1						1
	서강대	1	1					2
	성신여대	1	1					2
	숙명여대	1						1
	아세아연합대			1				1
	아주대	1						1
	연세대	3	2					5
	인하대	1		1				2
	조선대	1						2
	우송대	3		2		24		27
	청운대	4		9		32		45
	영산대	13		6		41		60
	부산외대	8	1	23	1	97		130
	한국외대	10	8	23	5	91	10	147
	소계	45	5	44	6	194	10	302
계		55	16	73	10	286	10	449

희소하다는 것, 둘째, 연구의 사례가 확장되었다고는 하지만 5대국을 제외한 소국들에 대한 연구가 희박하거나 부재하다는 것, 셋째, 사례연구가 주종이고 개관적 비교연구는 더러 있지만 체계적인 비교연구는 부족하다는 것, 넷째, 어문학 연구자들이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경우가 날로 희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할 만하다.

후진양성과 관련해서는 동남아학과 확산 같은 대학 내적 기반 확충이 지체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동남아학계의 후진육성모델은 후속 연구자들을 꾸준히 탄생시킨 성공적인 프로그램이었지만 대학원 중심의 육성전략이었다. [표 4]에 잘 나타나 있듯이 국내 대학에 개설된 동남아 강좌의 희소성, 분절성, 편중성으로 인하여 동남아가 학술적 연구대상이 될 수 있다는 동기부여가 조기에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동남아학계는 동남아 연구를 지망하는 학생이 부족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서강대 동아연구소가 동남아연구로 인문한국(HK) 사업지원을 받게 되면서 그간 집단적 노력을 투여하지 못했던 학부생 - 특히 역사학과 사회과학 전공생 - 대상의 지원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제성 -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